

신사업 막히고, 규제에 잡히고... 잠 못드는 기업들

R의 공포

④ 기업 체력 방편

#. 지난해 3월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에서 AS·모듈 사업부를 떼어내 현대글로벌비스와 합병,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는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父子)가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한 존속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면 기존의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 구조는 깨끗이 해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달여가 지난 5월 21일, 기존 개편안을 거둬들였다. 정 부회장은 개편안을 거둬들이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절감했다"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에는 벌처펀드로 알려진 미국 엘리엇이 지배구조 개편에 어깃장을 놓은 게 컸다. 이들이 내놓은 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이 같은 엘리엇의 대안은 국내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지결기가 처음도 아니다. 엘리엇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지분을 매입한 후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로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사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반대한 바 있다.

#. LG그룹은 서버원의 소모성자재(MRO) 사업부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대응이다. 서버원은 지주사 ㈜LG가 지분을 100% 보유한

미래성장동력 R&D 위축 우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외국 기업과 역차별 해소해야

회사다. 서버원은 "거래 기업의 구매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MRO 사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장에 제약이 있고 임직원 사기 위축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업 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이 본개입에 뛰어들기 전에 지쳐 가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기업들은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행동주의로 포장한 글로벌 투기자들의 판지 걸기에 체력을 쏟아 부어서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한국경제를 'R(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에 몰아넣을 가랑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달콤한 이익에 투자 밀려... 결국 주주에 부메랑

현대자동차그룹과 한진칼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한국판 엘리엇' KCGI(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애기가 나올때마다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들의 등락도 들쭉인다. 소액주주들은 팔장을 끼고 있다. 이들에 편승해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볼 심산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현대차그룹의

단기차익 추구형 주주행동주의 사례

구분	주체	대상	내용
경영권 위협	소버린	SK	경영진 교체 요구
	헤르메스	삼성물산	M&A 위협
	칼 아이칸	KT&G	사외이사 선임 및 공개매수
경영 간섭	KOL	일은증권	계열사 대출 요구
	캐피털그룹	삼성전자	본사이전 요구
	타이거펀드	SK텔레콤	사외이사 선임, 주식 액면분할 등
	헤르메스	한솔제지	우선주 유상소각 요구 등

경우 실적이 나빠진 상태다. 기업이 남은 현금을 배당으로 모두 소진한다면 투자자금이 부족해 향후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엘리엇과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이유다.

국내 한 기관 투자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은 달콤하다. 하지만 미래가치에 투자할 때 그 열매는 크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도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느라 체력이 방전돼 간다. 글로벌 항공사에 파이를 다 빼앗길 판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행동주의 투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은 균형감을 갖춘 올바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CEO가 만들어낸 균형에서 투자자는 새로운 균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 전략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넬슨 펠츠(Nelson Peltz) 트리안 펀드 매니지먼트(Trian Fund Management) 설립자는 "시장은 이미 너무나 효율적이

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대신, 주식을 산 뒤 그 기업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김예구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연구위원은 "기업의 향후 실적을 전망해 투자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 직접 경영에 개입해 기업의 미래 실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자본구조·사업전략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 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거물 칼 아이칸은 1985년 트랜스월드(TWA) 항공을 LBO(차입매수)를 통해 적대적 인수한 후 핵심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극대화해 '기업사냥꾼'의 전형으로 인식(Icahn이 손을 뗀 후 TWA는 3번의 부도 후 매각)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e 베이(2014년 말 시가총액 \$71B)·애플(\$641B)·바이오젠(\$83B) 등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하고, S

NS 등 미디어를 통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행동주의 투자로 전환했다.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 산업 효율성 저하 "정부 개입은 결코 시장 실패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유권자의 외면 속에 눈앞의 이익만 쫓는 정치 권력과 정부 관료들의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킨다." 자유주의 경제학 및 통화주의의 대부 데이비드 프리드먼(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이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때 한 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기업 환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인 '재벌 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개혁 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게 과도한 규제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833개가 규제법안이었다.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가 산업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규제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한국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차 혁명 가속화

과기정통부

현대차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 신청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4차산업혁명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제한 없이 기술 실증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고, 정부도 실제 적용 과정을 확인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제도 신청은 첫날부터 19건에 달했다. 그동안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 정부로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받아왔다.

상당수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었다. 단순히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중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 참가가 두드러졌다. 수소충전소를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조인스오토는 폐차 사업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더트라이브는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서 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 성장도 기대됐다. 우아한형제들은 CES2019에서도 선보였던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대학과 연구소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네트도혁신과 김광의 연구관(오른쪽)이 KT 미래사업협력실 정재필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형 콘센트를 한국전력이 아닌 기업들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차지인'과 IoT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판매를 임시 허가받은 스타코프가 있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체에서 4건이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었다.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해 질병을 예측하는 신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마크로젠, 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정랩 코스메틱 등이 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를 약제로 인정해 보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 부문에서의 혁신도 예고하고 있다. 모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과지를 활성화하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분야 신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데이터 활용 제약을 낮춰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사고 팔수있는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2가지 내용을 신청했다. /김재용 기자 juk@

KAI "2030년까지 항공산업 20조 달성"

김조원 사장 항공산업 간담회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발표
강소기업 1000곳 집중 육성

"항공우주산업은 보다 시스템화된 조직이 돼야 한다. 정부의 군수공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항공우주업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김조원 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은 1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주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항공우주산업의 지난해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가 갈 길에 대해 설명했다.

KAI는 이날 2030년까지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연 2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이 분야 강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조원 사장은 "KAI는 그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이 느슨했다"며 "지속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이 절실하다" 말했다.

지난해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마린온 사고는 20년 KAI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될 것"이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1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주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조원 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다. /정연우 기자

KAI는 지난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항공우주분야의 신규 협력업체 110개를 발굴하고 강소기업의 집중육성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항공우주분야의 협력업체는 총 330여개다.

KAI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은 군수사업보다는 민수사업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연구 개발 분야의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KAI에 따르면 세계 항공우주산업은 군수 시장은 정체기 예상되는 반면 민수시장은 전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의 활성화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KAI의 사업구조는 현재 국내 군수 비중 40%, 완제품 수출과 민수 기계 구조물 비중은 60%로 민수가 균형 잡힌 사업구조로 발전해왔다.

KAI는 고객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될 항공기의 핵심 기술

을 공동 개발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적합한 100석 이하의 중형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세계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기를 다양화하는 한편 개인용 무인이동체(PAV) 개발을 통해 미래형 무인 이동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6년 이후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를 활용한 신규 항공기 개발을 계획 중이다.

한편 KAI는 지난해 경영시스템 재정립, 수리온 양산 재개 및 신규 수주 확대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했다.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19조원에 이른다.

KAI 관계자는 "현재 민수사업과 관련된 투자가 미미한 편이다"라며 "정부 부처별 역할과 권한을 분리하고, 체계적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